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교육

vol.456 2020 JULY

멈출 수 없는 교육! 철저한 방역, 안전한 학교로 실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일상,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06 삶과 교육

진영아 내곡중학교 교감
마을결합형 학교에서 미래학교를 보다

14 교실혁명

교사 유튜버는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을 한다

34 정책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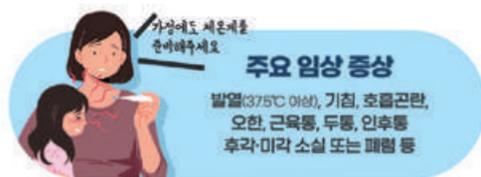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배달합니다"



어서와~
마스크 쓴 여름은 처음이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여름철 학교 생활 안내서

1 등교 전 아침에 집에서 점검해요



주요 임상 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패혈 등

증상이 있으면
등교·등원을 하지 말고
먼저 학교에 알려주세요!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 입국자,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포함)

2 치료는 신속하게!

의심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
신속하게 조치를 받아야 해요



-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
-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집에서 충분한 휴식!

3 학교에서 마스크 사용법

방역용 마스크(KF94, N95 등)가 아닌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 가방과 주머니에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요



잠깐!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4 교실에서 에어컨 사용법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교실 문, 창문을 수시로 열고
환기를 생활화해요

-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Contents

21

특별기획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 청사진

교육부는 최근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5개년)'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의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과 간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이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데, 대표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여 학생들이 첨단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청사진을 살펴본다.



34

정책을 말한다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배달합니다”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학부모와 농가,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사업에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부산 기장군에서 참여하며 499만여 명의 학생 가정에 3만 7천 톤의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일부 지역(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Contents



Cover story



등교수업이 시작된 학교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끼고, 책상을 한 줄씩 띄워 앉으며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다. 경기 대호초등학교(교장 신순하) 박준호 교사도 마스크를 낀 채 수업에 임한다. 비록 마스크에 얼굴이 가려져 있지만, 교사와 학생이 서로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오랜만이다.

특별기획

21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끄는 인재 양성 청사진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삶’ 중심의 미래 역량 함양 교육 기초 다지고, 첨단 누리며, 미래 이끄는 과학교육
생각하는 힘! 미래를 주도하는 수학교육
정보·AI 역량 기르고, 차세대 교육기반 조성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융합교육

정책

33 더 넓고 깊은 정책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배달합니다”
대전시교육청_ 위(Wee) 프로젝트
코로나19 대응 ‘K-방역’ 제8차 웹세미나 개최

04 찰칵

한여름의 구슬땀

06 삶과 교육

진영아 서울 내곡중학교 교감
마을결합형 학교에서 미래학교를 보다

10 꿈이 영그는 현장

2020, 6.25 전쟁 70주년
마음에 조국애와 평화의 불씨 새긴다

14 교실혁명

교사 유튜브는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을 한다

18 똑딱똑딱! 자료실

무료 디자인 플랫폼에서 수업자료 만들기

34 정책을 말하다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배달합니다”

38 교육자치시대

대전시교육청_ 위(Wee) 프로젝트

41 이달의 교육뉴스

44 이슈

코로나19 대응 ‘K-방역’ 제8차 웹세미나 개최

46 교육포커스

블렌디드 러닝 수업,
교육과정에 상상력을 입혀라

50 통계로 읽는 교육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52 진로탐색

스마트팜 분야

54 교육 소확행

‘코로나’가 바꾼 유치원 풍경

56 이야기 인문학

상상적 여행의 감동과 울림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58 교사상담실

고3 입시 어떻게 준비하죠?

62 명예기자 리포트

대학 온오프라인 시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외

64 교육설전

무더위 속, 등교수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행일 2020년 7월 10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박형민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왕좌왕하다 보니 2020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당시에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말이죠. 올해는 무척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벌써 기승을 부리네요. '한여름의 구슬땀'을 주제로 무더위 속에서도 씩씩하게 일상을 보내는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8월의 주제는 '여름방학'입니다.
eduzine21@gmail.com으로 많은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 문승욱 부산초등학교 교무행정사

늘 아이들은 노는 게 부족하다. 코로나로 더 힘든 시기라 교실 안 수업이 답답할 것이다. 게임을 하든 밖에서 뛰든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들이 성장기에는 참 중요하다. "다음 시간은 야외수업하자."라는 2학년 담임교사의 말에 아이들은 신이 났다. 학교 주변에 어떤 나뭇잎과 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름도 알아본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 밖 수업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본다. "조금 더워도 괜찮아~"



☉ 이명주 문태고등학교 교사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독도수호를 위해 애쓰는 아이들의 마음보다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무더위 속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아이들이 외칩니다. "지켜내라! 독도수호! 실천하라! 독도사랑"

☉ 김인순 장흥 장평중학교 교장

올해 새로 전입해 오신 두 분의 선생님과 환경 담당 선생님이 힘을 합쳐 텃밭을 활용한 교육을 하겠다고 2월부터 준비했다.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밭을 갈고, 거름을 뿌리고, 씨앗을 준비했다. 아이들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코로나19로 5월 중순이 되어도 등교 개학을 하지 못했다. 환경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과 기르고 싶은 작물을 선정해 놓고 개학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풀들이 우거지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온라인 수업을 마친 선생님들이 아이들 대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다. 그리고 6월 22일 하룻날 환경 시간에 감자를 캐다. 어른 주먹만한 감자가 몇 상자 나왔다. 가정 시간에 실습으로 쓸 감자를 남기고, 전교생, 전 교직원이 열 개씩 감자를 두루 나누었다. 그리고 남은 감자를 급식실에서 찌서 전 구성원이 감자 파티를 벌였다. 처음에는 '감자 별로 안 좋아해요.' 했던 아이들이 한두 명 먹어보고 '아 맛있다.'란 반응에 전교생이 달려들어 금방 바구니가 동이 났다. ☉



‘학교와 도서관’의 만남

마을결합형 학교에서 미래학교를 보다

개교 3년째를 맞는 서울 내곡중학교는 전국 최초의 마을결합형 학교로 운영된다. 이미 온라인 학습플랫폼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구축하면서 코로나19 국면의 원격수업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개교와 함께 이곳에서 혁신미래학교로서의 또 다른 내일을 디자인해가고 있는 진영아 교감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진영아

서울
내곡중학교
교감



66
아이들의 등굣길 산책로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머지않아 소금밭처럼 메밀꽃도
피어날 겁니다.
그 화원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일 음악회도 열릴 것이고요.
석양 무렵 도서관에서는
또 마을 사람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낭송하는 운동주의 시가
흐르게 될 거고요.
내곡중학교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될 아름다운 풍경들입니다.

99

2018년 3월 개교한 서울 서초구 내곡중학교(교장 조용수)는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마을결합형 학교다. 교정 안에 들어선 서초구립 내곡도서관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개방된다. 개교 전 이곳에 부임하면서 학교와 도서관의 완공과정을 지켜본 진영아 교감은 “학교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공간인 만큼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이곳에서 열린다.”라고 소개했다. 학생들의 독서토론회는 물론이고, 도서관 키즈존에서는 봉사 동아리 학생들의 책 읽어주는 형(언니)들의 봉사활동도 전개된다.
“개교 직후에는 학생들의 보호와 안전문제로

지역민들의 도서관 활용이 잠시 제한되기도 했었죠. 보완책으로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출입문을 이원화하여 학생·교직원과 별도로 분리하면서 개방했죠. 도서관 시설 지원과 사서 등 운영은 지자체에서 맡고, 지역주민·도서관·학교 협의체에서 도서 선정 등 분기별로 도서관 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계산 자락, 공원녹지의 자연생태학교로!

올해로 교직 35년째, 진영아 교감은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형 혁신학교의 틀을 기획하고 운영해온 혁신학교 전문가이기도 하다(진 교감은 35년 교직 생활의 공로로 지난 5월 정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최근 2년 동안은 이곳 내곡중에서 마을결합형 학교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또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도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도 내곡중은 실시간 화상채팅 수업방식을 채택,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물론 우리 학생들도 학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등교 개학 후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은 재밌어서 좋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업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1 _ 구립도서관이 학교에 동지를 트 것일까? 학교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된 것일까? 전국 최초로 마을결합형 학교를 개교한 진영아 교감

고요. 학교에 오고 싶었다니, 뜻밖의 대답이어서 놀라웠죠.”

내곡중은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이 융합한 혁신미래 학교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좀 더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진 교감은 “도서관 개방이라는 마을결합형 학교로부터 몇 걸음 더 나아가 자연친화형 생태학교, 공원녹지 학교로 더 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운 자연생태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완성되고, 강화된 스마트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혁신미래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업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저는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말을 즐겨 사용해요. 학교현장에서 ‘교실 붕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저 역시 한계를 느끼곤 했었죠. 그 무렵, 혁신학교와 만났고요. 이후부터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됐지요. 당시 제가 근무한 혁신학교는 이른바 취약지구 산동네였는데, 학생들의 학력 저하 없이 오히려 향상됐어요. 저 역시 놀라웠죠. 요즘도 저는 선생님들에게 ‘수업에 날개를 달고 맘껏 펼쳐 날아보시라’라는 주문을 자주 해요. 또 교사학습공동체나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참가를 권유하기도 하고요.”

젊은 신세대 선생님들이야말로 앞으로 30년의 교육을 짊어질 소중한 자원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교사도 변화 앞에서는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는 늘 당부하곤 한다. 과학교사였던 그는 오래전,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모험에 나서곤 했었다고. 이를테면 ‘학생 수준별 생활

연계형 과학교육,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실험’ 등 생활 속에서 친숙하고 재미있는 소재들을 발굴해 실험 수업에 적용하곤 했다. 교직 첫 발령지였던 서울맹학교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교육자료를 개발, 선보였다.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보충설명으로 들려주는 내용을 카세트테이프에 모두 녹음해서 배포하곤 했죠. 점자책으로 제작할 여건은 되지 못하니, 시각장애를 겪는 학생에게는 꽤 유용한 수업자료였어요. 그 자료를 귀로 공부했던 제자들이 후에 대학에도 들어가고, 또 선생님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뿌듯하면서 보람도 있었죠.”



2 _ 학교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공간인 만큼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린다. 특히 도서관 카페는 다양한 도서모임,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3 _ 서초구립내곡도서관 마을결합 현장 토론회 모습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어요’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학교관리자로서 그가 강조하는 항목은 수업 혁신과 더불어 학생자치 활성화. 이곳 내곡중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그 시간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주로 대체된다. 예체능 영역 외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 등처럼,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동아리들이 학생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고, 운영된다. 또 ‘꿈 음악회’처럼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열리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자랑하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희 내곡중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철학은 명료해요.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지식 전달보다는,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인 창의적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아이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어요.” 진영아 교감이 들려준 이 말에는 세상의 아이들을 꽃처럼 예쁘게 지켜주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다.

1학년이 마지막으로 등교한 6월 8일 이후 열흘 남짓 지난 19일 취재 당일, 진 교감은 교내를 걸으면서 만나는 학생마다 연신 눈을 맞추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일복이 많아서인지 이곳이 개설 혁신학교로만 두 번째 부임이었어요. 남은 임기 동안, 젊은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공원녹지가 있는 자연생태학교 조성이라는, 이곳 내곡중학교만의 철학과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지고등학교

2020, 6.25 전쟁 70주년 마음에 조국애와 평화의 불씨 새긴다

남지고(교장 김효근) 학생들은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나라사랑 국토사랑 자전거 호국순례'를 위해 자전거에 오른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28년간 이어왔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자전거 호국순례길에 오른 학생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글 성완 남지고등학교 교사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뜰에도
장미와 찔레꽃이 피어나는 계절
경건히 두 손 모아 향을 피워 올리고
못다한 이야기를 기도로 바치는 오늘은 6월 6일
몸으로 죽었으나 혼으로 살아있는 님들과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입니다
- 이해인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 卍

경남 창녕 박진나루터는 1950년 8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미군 2사단과 제24사단이 북한군 제4사단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곳이 무너지면 밀양과 부산은 물론,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점령당하는 최후의 보루였던 셈이다. 박진지구전투에서 승전함으로써 낙동강을 건너 반격하게 되었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2020년,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순국선열과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애쓴 참전용사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함을 전한다.

남지고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나라사랑 국토사랑 자전거 호국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993년에 시작된 행사는 올해로 28년째 이어지고 있다.

12 _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박진지구 전투의 전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박진지구전적비 앞에서 남지고교 3학년 학생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6월 6일 새벽 6시, 호국순례길에 오르다

제65회 현충일 이제 막 동이 튼 새벽 6시, 학교 운동장에는 자전거를 끌고 나온 학생들로 북적였다. '나라사랑 국토사랑 자전거 호국순례' 행사가 작년까지는 전교생 중 절반 정도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학년생 23명과 지도교사 8명 등 32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6시부터 30분간 자전거 탑승을 위한 안전교육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모와 자전거를 점검하였다. 이후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여 남지개비리길을 지나 8시쯤에 목적지인 '박진지구전적비'에 도착하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학교에서 가지고 간 청소도구로 1시간 넘게 박진지구전적비와 그 주변을 청소하였다. 이후 깨끗하게 정돈된 전적비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와 헌화로 시작하여, 이해인 수녀님의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 추모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교장선생님의 추념사가 끝난 후에는 다함께 큰 목소리로 현충일 노래를 부르며 추념식을 마무리하였다.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표정과 경건한 마음으로 임했다.

28년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뜻을 잇다

남지고 '나라사랑 국토사랑 자전거 호국순례'는 1993년 6월 6일에 학생 소모임인 '청심아이들'에 소속된 학생들이 박진지구전적비 주변 정화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행사의 유래가 되었으며, 자전거 호국순례는 1994년 6월 6일부터 '맑은아이' 동아리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전거 호국순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총 500여명 참여하는 지역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가 특히, 2007년 7월 10일에는 15년 동안의 활동 성과로 마산보훈지청과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맑은아이 동아리 학생들이 박진지구전적비 지킴이로 활동



3 _ 박진지구전적비 주변 환경 정리하는 학생들

길을 타면서 숨이 턱턱 막혔지만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은 마을 주민들과 서로를 응원해준 친구들,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었다. 청소까지 하느라 몸은 고되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을 생각하니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번 호국순례를 통해 나의 체력을 단련하고, 앞으로의 고3 생활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자전거 호국순례 행사가 장수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학생들이 있다. 또, 학교가 낙동강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행사 때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있다. 이런 저력으로 자전거 호국순례와 박진지구전적비 정화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다.

김효근 교장은 “학생 여러분의 애국심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한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영원히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라며 “오늘, 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호국영령들을 위한 참배와 청소 활동이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조국애와 평화, 그리고 인류애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진심의 말을 전했다.

자전거 호국순례는 학생들에게 매년 나라사랑의 마음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자전거로 호국순례길에 오른 학생들의 가슴에 조국애와 평화의 불씨를 새긴다. ㉞

1993

제28회 나라사랑 국토사랑 자전거 호국순례



2020

제28회 나라사랑 국토사랑 자전거 호국순례



하게 되었다.

2009년 3월부터는 현충일 나라 사랑 자전거 호국순례가 남지고 특색교육 활동으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무려 28년째를 맞이하는 전통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2009년 6월 1일에는 '2009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및 대외유공인사 정부포상'에서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왕복 35km 도전, 가슴에 '뜨거움'을 새기다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다. 행사에 참여한 3학년 1반 이정민 학생은 “왕복 35km가 넘는 자전거

교사 유튜버는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을 한다

유튜브를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고, 공부하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는 등 학생들의 일상 속에 유튜브가 자리 잡게 됐다. 이에 따라 유튜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 대호 초등학교(교장 신순하) 박준호 교사는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튜브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글 양지선 기자

1 _ 박준호 교사는 '몽당분필'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 유튜버'다.



2 _ 박준호 교사가 직접 제작한 영상뿐 아니라 수업내용에 참고가 될 만한 모든 영상은 유용한 학습 도구가 된다.

박준호 교사는 '교사 유튜버'다. 교사 유튜버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지난 2016년, 동료 교사와 함께 '몽당분필'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오픈해 현재 구독자 1만 3천 명을 돌파했다. 지금은 현직교사 74명이 함께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기반 학습지, 학교 공감 이야기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마련되기 전,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인해 유튜브 활동에 제약이 걸릴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묵묵히 채널 운영을 이어가, 이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등 교육기관 채널과도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그가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교사의 역할이 크리에이터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박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창의적인 일의 연속이다.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나,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를 잘 검수하는 큐레이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교사 본인의 역량도 강화되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사의 수업에서는 유튜브가 자연스럽게 활용된다. 그가 직접 제작한 영상뿐 아니라 수업내용에 참고가 될 만한 모든 영상은 유용한

학습 도구가 된다. "학생들이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유튜브를 수업시간에 활용하게 되니 집중도가 높고, 교사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는 게 느껴진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유튜브 속 올바른 정보 선별·생산 교육 필요성 느껴

박준호 교사가 단순히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을 넘어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직무연수를 준비하면서부터다.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에 활용할 영상 제작 방법과 영상 선별에 대한 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는 학생들이 자주 보는 만큼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생산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의 교육과정은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교과서도 없고, 관련 자료도 부족해요.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직접 교육과정을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은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교육으로 나뉜다. 누구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유튜브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유튜브 생산자 교육에는 △책임 있는 영상 제작 방법 △영상에 나의 이야기 담기 △영상 공유하는 법 △피드백을 통해 성찰하기가 있다면, 소비자 교육에는 △나의 유튜브 소비 방식 엿보기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등이 포함



3 _ 참여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 교사의 수업에서는 에듀테크가 자주 활용된다.

4 _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며 함께 소통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박 교사의 수업 원칙이다.

된다. 박 교사는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의 최종 단계는 디지털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와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교실

“유튜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각자 스마트폰으로 의견 보내볼까?”

지난 6월 23일, 대호초등학교 4학년 1반의 5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박준호 교사의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이 진행됐다. 등교수업 이후 처음 진행된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인 만큼, 학생들의 유튜브에 대한 생각과 각자 즐겨 보는 채널을 공유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마련됐다.

참여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 교사의 수업에서는 에듀테크가 자주 활용된다. 학생들은 익숙

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수업 도구인 ‘뽕커벨’ 사이트에 접속하고, 방 번호를 입력한 후 각자 유튜브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입력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의견을 보내도록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은 미니 화이트보드에 적은 후, 앞자리에 앉은 친구가 대신 보내주도록 했다. 교실 전면의 화면에서는 ‘크리에이터’, ‘재미’, ‘브이로그’, ‘먹방’ 등이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났다.

“브이로그가 뭔지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볼까?” 박 교사의 말에 학생들이 경쟁하듯 손을 들고 이야기했다.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며 함께 소통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박 교사의 수업 원칙이다.

“평소에 참여형 수업을 많이 강조해요. 이전에는 놀이 속에서 규칙과 통제력을 배우는 수업을 많이 해왔죠. 유튜브가 대세가 된 후로는 한 학기에 적어도 한 번은 자기가 직접 영상을 기획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고 있어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재미있고 신선한 수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재미있고 신선한 수업 목표”

유튜브 리터러시 첫 수업은 ‘몽당분필’ 채널에 올라온 교육 콘텐츠를 함께 시청한 후, 앞으로 유튜브를 이용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용할지 다짐을 써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음 차시에는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유해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수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학생들은 처음 경험한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을 학생은 “TV에는 편성표가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준다는 것을 배웠다.”라며 “평소에



자주 보던 유튜브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재밌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신지우 학생은 “앞으로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는 게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박준호 교사도 요즘 덩달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쉴 틈 없이 매일 유튜브 리터러시 연수가 이어진다고 한다. 주변의 시선이 180도 달라지는 동안, 그는 현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저희 채널명 ‘몽당분필’은 열정적인 교사를 뜻해요. 열정적인 교사들이 모여 현재 교육과정이 담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관련 정책과 교사 지원도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박준호 교사의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 TIP



1. 유튜브 속 문화 이해하기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퍼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채널은 무엇인지, 교사가 먼저 노력하고 다가가야 학생들과 대화가 이어진다. 또, 안 좋은 문화가 있다면 이를 알아야 제지할 수 있다.

2. 유튜브 감수단 키우기

영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에서 무척 중요하다. 특정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고, 유해하지 아닌지 가르도록 한다. 교실은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이 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영상을 판별하는 눈이 길러진다.

3. 영상 콘텐츠 만들기

유튜브 리터러시에는 영상을 생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포함된다. 학생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보게 하는 것은 막연히 유해 콘텐츠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면 학생의 수업 참여도 독려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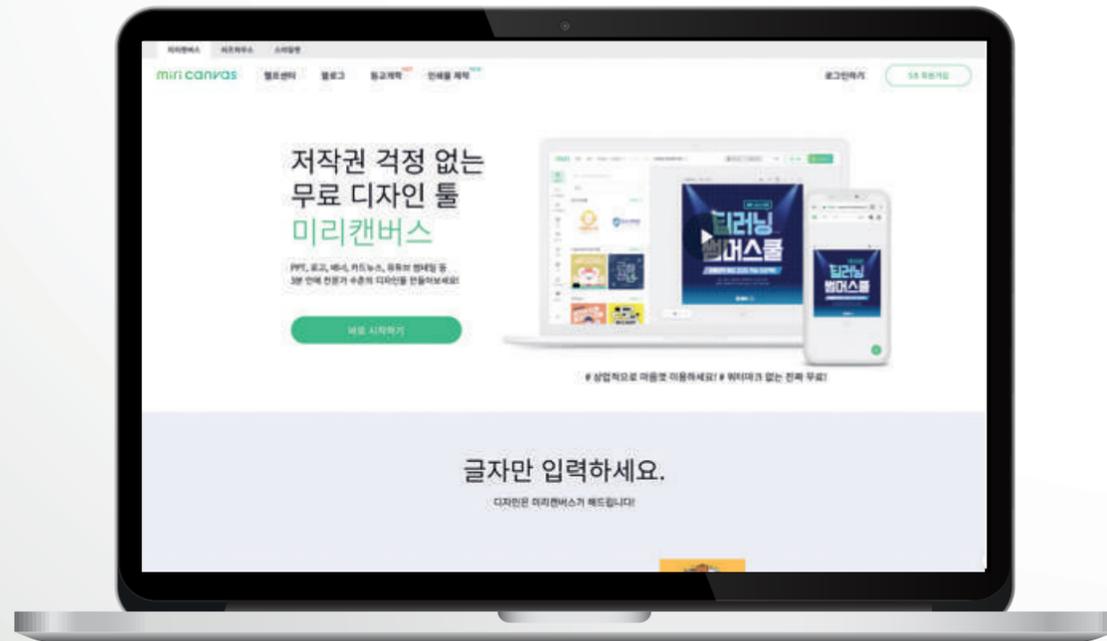


무료 디자인 플랫폼에서 수업자료 만들기

블렌디드 러닝의 시대가 '확' 열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공 콘텐츠에서부터 민간 콘텐츠까지 다양한 도구와 콘텐츠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원격 수업을 하는 비율도 47.8%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직 낯설어서, 어려워서 도전을 미루고 계신 선생님을 위해 <행복한 교육>이 수업자료 쉽게 만드는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편집자 주>

미리캔버스 www.miricanvas.com

미리캔버스는 무료 디자인 플랫폼으로 1만 5천여 개의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갖추고 있고, 폰트와 이미지를 활용해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템플릿' 카테고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면 온라인 수업자료용으로 적절한 다양한 PPT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하는 디자인을 클릭하고, 안의 내용만 수업에 맞게 바꾸면 되니 간편하죠?
- 이미지가 필요할 땐 '사진' 카테고리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원하는 사진을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어요. '내 이미지' 카테고리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죠.
- '요소' 카테고리에는 수업자료를 더 꾸미거나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일러스트, 도형, 프레임 등이 있습니다. 표도 만들 수 있어요.
- 완성된 템플릿은 링크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클릭해 파일로 저장합니다. 링크로 공유할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하면 JPG, PNG, PDF, PPT 파일로 저장 가능해요. ②

- ② 참고할 만한 사이트
- 슬라이드고 slidesgo.com
슬라이드고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은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와 연동해 이용할 수 있어요. 색깔 혹은 주제별로 분류돼 있어 원하는 디자인을 찾기 쉽고, 특히 교육 카테고리 템플릿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저작권 기한이 지났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저작물을 제공해요. 사이트에 올라온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자료, 폰트 등을 전부 무료로 사용하도록 개방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가는

재난 안전 프로그램

103개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확대 실시

우리가 스스로
안전훈련에 참여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이해해요

재난을 이해하고, 역할체험 모둠 수업을 통해
주변 환경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배워요.



모의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해요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역할을 나누어
모의훈련을 하고 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보완해요.



현장훈련을 해보고 의견을 나눠보아요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 훈련 프로그램을 보완해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체험형 훈련으로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요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 청사진

교육부는 최근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5개년)'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의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과 간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이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데, 대표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여 학생들이 첨단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청사진을 살펴본다.

- 22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삶' 중심의 미래 역량 함양 교육
- 24 기초 다지고, 첨단 누리며, 미래 이끄는 과학교육
- 26 생각하는 힘! 미래를 주도하는 수학교육
- 28 정보·AI 역량 기르고, 차세대 교육기반 조성
- 30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융합교육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삶’ 중심의 미래 역량 함양 교육

글 박은중(공주대 겸임교수·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회장)

2020년 코로나19 대란으로 세계의 교육이 일찍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팬데믹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대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이 ‘포스트 코로나19’에는 우리의 일상과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2020~2024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의 중장기 로드맵이자 핵심 정책 패러다임이다. 나아가 미래 한국의 최첨단 교육 청사진으로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할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의 체계적인 계획이다.

이 종합계획은 교과목(영역) 간 연계와 융합으로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고, 에듀테크(edu-tech)를 바탕으로 한 최첨단 미래 교육·수업 체제의 도입으로 세계화 시대·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듀테크 시대의

미래 인재 핵심 역량 함양

2020~2024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은 ‘실생활 관련 내용 중심’과 ‘기초 기본 충실’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인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과 일맥상통하는 새로운 미래형 교육전략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의 필수 역량으로 자기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심미적 감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능력 등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미래 인재의 10대 핵심 역량으로 복합 문제 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지능,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세계화·제4차 산업혁명·에듀테크 시대를 포괄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인재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창의력·사고력, 의사소통·의사결정력, 협업·인간관계·공감력, 정보·디지털·에듀테크 구사력 등으로 유목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육은 지식 암기교육, 상급 학교 진학 교육에 매몰돼 이와 같은 핵심 역량교육을 소홀히 해왔다. 정곡을 놓치고 변죽만 울린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을 자성해야 한다.

앞으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미래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교가 제자리에 바로 서 학생들을 특정 교과목(영역)의 ‘공부 선수’를 육성하던 구태에서 탈피해, ‘생각하는 힘’, ‘더불어 사는 삶’ 등 미래 인재의 실용적인 핵심 역량 함양에 진력해야 한다.

과거의 교육이 ‘잡은 물고기를 먹여주는 교육(지식)’이었고, 현재의 교육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기능·능력)’이라면, 미래의 교육은 ‘대양(大洋)을 음미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고 도전토록 하는 교육(역량)’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교육의 열쇠, 교육과정·수업 혁신의 기제인

에듀테크 활성화

2020~2024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은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획기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융복합, 교육과정·수업과 최첨단 기술의 통섭을 기반으로 한다.

에듀테크는 미래 교육을 여는 열쇠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에듀테크는 ICT교육,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무크(MOOC), 디지털·스미트기기, 온라인 원격교육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현재까지는 일선 학교에 ICT교육, 3D프린터,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기기 정도가 상용화된 초보 단계지만, 향후 교육 전반의 방법적·공학적·매체적 영역을 섭렵할 것이다. 특히 에듀테크는 학생·교원·교실의 변화를 통한 수업과 교육 혁신의 기제다.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꿔 궁극적으로 교육의 틀을 혁신할 것이라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란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이 원격수업(강의)을 운영하면서 에듀테크의 중요성과 잠재 가능성을 실감하였다. 미래교육은 비대면(untact), 새로운 정형 표준(new normal)이 일상화돼 최첨단 에듀테크가 대체할 것이다.

결국 2020~2024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은 한국 교육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교육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미래 인재인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 열정을 펼치도록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시대정신이다. ②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2020~2024년)

기초 다지고, 첨단 누리며, 미래 이끄는 과학교육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직접 화학약품을 다루지 않고도 가상현실을 통해 화학수업을 할 수 있으며, 혼합현실을 통해 태양계나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날씨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수학, 공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목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지구 환경 관련 수업에 국립해양대기청 ‘스마트 부이 프로젝트’를 이용, 전 세계 해상에 떠 있는 해상관측용 부표, 부이를 통해 전달되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실감형 수업이 이뤄진다.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에 따르면 AI, AR, VR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과학탐구와 실험 활동, 융합적 교육활동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능형 과학실은 인공지능,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이 집약된 온라인 플랫폼에 실험, 토론, 학습/발표, 창작, 전시영역 등 오프라인 공간이 공존하는 곳이다. 올해 86교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1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과학에 대한 흥미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달 수준에 따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초등생은 놀이·체험 중심으로, 중·고등학생은 과학탐구·실험 중심으로 교육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도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수준별·진로별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지원 AI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AI 시스템은 학생의 과학 학습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 진단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 등 학습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연구를 시작하여 2021~2023년까지 AI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에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학탐구·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외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 수업 콘텐츠도 개발한다. (가칭)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탐구 등 중·고등학생을 위한 미래형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첨단 과학기술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확대된다. 연수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과학 수업과 탐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기술(IoT, LBS, SNS 등), 정보화 기술(빅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 지능화 기술(AI 등), 스마트화 기술(AR, VR, 3D 프린터 등) 등을 배울 수 있다.

그 밖에도 학교와 국내외 대학·기업·지역사회를 연결한 ‘STAR 브릿지 센터’를 운영한다. 스타브릿지센터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교수·학습, 평가설계, 탐구·실험 활동 등 다양한 연수와 콘텐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교사와 과학기술 전문가 간의 협력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㉔

학생
신나는 과학교육

-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내용·방법 다양화 (유·초등) 놀이·체험 중심 과학교육 (중등) 과학탐구·실험중심 교육
-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교사
우수한 과학교사

- 경력 및 역량 고려 맞춤형 교원 연수 운영
- 첨단 과학기술 활용 수업 역량 강화
- 예비교사의 과학 소양 및 전문성 강화

인프라
지능형 과학실

- ‘지능형 과학실’ 인프라 구축 *AI, AR/VR, IoT 등 첨단 과학기술 활용 과학탐구·실험 활동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공간 (온라인) 웹기반 온라인 탐구·실험 공간 (오프라인) 첨단 과학기술 활용 가능한 학교 내 과학실
-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시스템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교육시스템

전국 단위 지능형 과학실 수

2020년 86교 → 2024년 모든 학교

- 시공간 초월 과학탐구·실험 기반 마련 *과학탐구 시뮬레이션 개발 및 온라인 수업 지원 등
-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과학 교육과정 개편
- 과학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 정비

세계화
글로벌 과학교육 협력

- 모두가 함께하는 과학교육 협력체계 구축 *학교-대학-기업-지역사회 연계 과학교육 허브 마련
- 국제 과학교육 교류 프로그램 확대

문화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과학 프로그램 제공
- 소외계층의 과학기술 분야 진로개발 지원 강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2020~2024년)



생각하는 힘! 미래를 주도하는 수학교육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는 '수포자' 없는 수학교실을 만들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한편, 수학 핵심 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수학 과목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 한 번 학습 부진이 생기면 누적되어 훗날 수포자의 길에 들어서기 쉽다. 교육부는 수포자 없는 수학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수학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흥미 위주,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델학교인 '수학점핑학교'를 운영한다. 여기서는 수학 학습 부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처방과 종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초등학교에는 수학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예비교사 등을 수업보조교사로 활용한 1교실 2교사제 운용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이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리과정과 수학교육과정을 놀이·체험·탐구 중심으로 개발한다.

또한, (가칭) AI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도 추진

한다. AI 데이터 리터러시 학교는 데이터를 수집·정리·분석·해석하는 통계 활용 수업이나 타 교과와 연계하여 사회·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계 수업 모델학교로 통계청과 협업하여 올해 100개교를 운영하며, 점차 늘려 2022년까지 300개교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신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수학적 개념을 활용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링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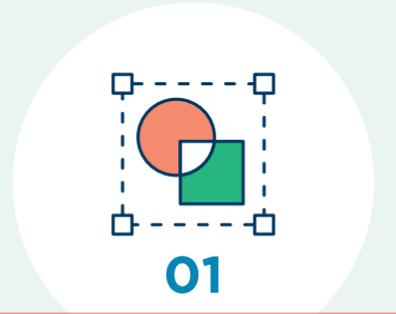
앞으로는 수학교육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학학습지원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별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이후 학생별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꾸준한 학습관리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 결손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때 맞춤형 학습 결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학생 관찰과 상담을 통해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수학학습지원시스템'은 올해 연구를 시작해 2021~2022년 개발 추진하여 2023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수학교실 구축 등 학습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지능형 수학교실에는 다양한 체험·탐구 수업이 가능하도록 무선 인터넷망과 실물·가상의 수학교구와 컴퓨터, 전자칠판, 3D 프린팅 등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교사주도형 학습, 학생 협력형 학습, 개별 학습 등이 가능하다.

수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급별로 연수를 강화한다. 학교급과 상관없이 수학콘텐츠 제작, 수학클리닉, 통계교육, 평가 전문성을 연수하며, 초등은 유·초, 초·중 연계성 연수와 교구 활용 중심으로, 중등은 공학도구·SW 활용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 ㉔

66

수학교육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학학습지원시스템'이 적극 도입된다.

99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교육

-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학급별 교육 연계 강화, 개별 맞춤형 수학 학습 지원
- 미래사회 역량을 높이는 교과목 재구조화
- 삶과 연계한 융합적 수학교육 강화



AI 진단교육 시스템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스템 개발·활성화
- 수학 탐구가 가능한 공학적 도구 활성화



앞서가는 수학교사

- 수학교사 전문성 극대화 및 첨단기술 활용 역량 강화
- 맞춤형 연수, 교원 학습 공동체 활성화
- 예비 수학교사 교수 학습 전문성 강화



수학 핵심 인재

- 수학영재 조기 발굴과 진로·진학 연계성 강화
- 수학영재 판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모두가 누리는 수학 문화

- 학교 밖, 다문화, 평생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로 보장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발전 협의체 구축
- 학교-대학-기업-지역사회 연계 수학교육 허브 마련
- 수학의 가치 체험 기회 확대와 수학 문화 콘텐츠 질 제고



제1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2020~2024년)

정보·AI 역량 기르고, 차세대 교육기반 조성

66

차세대 정보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AI 핵심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99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관련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열쇠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149호, 2019.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인적자원 경쟁력은 중국·대만보다도 낮다. 세계 인공지능 핵심 인재 500명 가운데 우리나라 출신 비율은 1.4%로 미국(14.6%), 중국(13.0%), 싱가포르(6.2%), 프랑스(2.8%), 대만(1.8%)보다도 낮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정보교육 종합계획에는 초·중학교 정보교육 필수화를 넘어 차세대 정보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AI영재학교, 거점형 일반고 운영 등 국가 AI 핵심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원격수업이 전국 초·중·고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학교현장에서 ICT 활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번 정보교육 종합계획에는 모든 학교급에 '정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AI 교육의 내용·범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정보 기초교육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기반을 조성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초 5~6학년 대상의 SW교육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초 1~4학년은 ICT 활용 교육을, 초 5~6학년은 정보·AI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중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하여, 1학년은 주당 1시간 이상의 ICT 활용 교육을, 2학년은 정보 과목을 편성하여 AI의 원리와 실생활 적용원리를 배운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정보 관련 과목을 신설하여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소인수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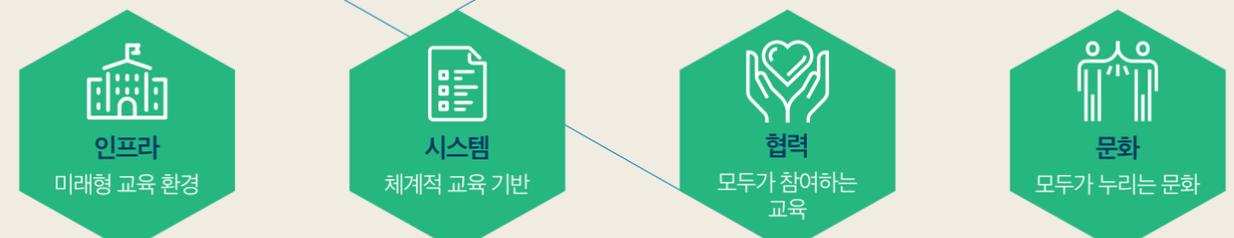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외에도 대학생, 일반인까지 AI,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에 대한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교육 플랫폼'을 과기부와 공동으로 개발(2021년~)에 나서는가 하면, 수리·통계 교육을 위한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 초등 25편, 중등 45편을, 하반기에 중등 AI 수학 35편을 각각 보급한다.

또한, 오는 2024년까지 기존의 영재학교 중에서 역량 있는 학교를 선정해 AI 영재학교로 전환하며,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구소와 국내 주요 IT기업이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문적 연구 역량을 키우고 기업이 정신을 가르친다. 올해 'AI융합교육 거점형 일반고'도 34개교 운영한다. 그 밖에도 SW교육 선도학교를 2년 이상 운영한 학교 중 AI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247개교에 우선 도입되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정보·AI교육 우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SW·AI교육을 강화하고 정보·컴퓨터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단계에서 실습 및 탐구역량을 평가한다. 현직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원 '교사 재교육' 과정을 통해 AI 등 미래 유망 분야와 연계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올해부터 38곳의 교육대학원에 'AI 융합교육 전공'을 신설하였으며, 매년 1,000명 내외의 현직교사를 재교육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미래형 정보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학내 무선망을 구축하고 보급형 기기 도입으로 1인 1태블릿PC를 보급하는 한국형 OLPC(The One Laptop per Child) 운동이 추진된다. 2024년까지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간 협업 및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2실 규모의 정보교육실을 구축하며, 시도별로 정보교육 거점센터도 1곳 이상 구축한다. ②



- 교육 공간 혁신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모델학교 확대
- 2020년 국립 6교 → 2024년 국립 전체
- AI교육 인프라 구축
초·중·고 전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 (~24년)
모두를 위한 AI교육 플랫폼 구축(21년~)

- 정보·AI교육 제도 정비
미래세대 정보·AI교육 기초 연구
미래형 교과서 모형 개발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혁신
정보·AI 윤리교육 강화
놀이 중심 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학습 활성화

- 격차 해소·맞춤형 교육 강화
미래세대 정보·AI교육 기초 연구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
-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
부처·민간·학계 거버넌스 구축
전문가·교사·학생 글로벌 교류 확대

- 긍정적 인식 확산
체험·탐구 중심 프로그램 강화
대국민 인식 확산·홍보
- 모든 세대의 정보 소양 함양
생애 전주기 교육체계 마련
생활 속 정보교육 서비스 제공



제2차

융합교육 종합계획
(2020~2024년)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융합교육

현대 사회는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

교육부는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과학·수학·정보교육 중심의 교과 간 융합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공간을 설계하고 최첨단 기술과 도구를 융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개인·학교·사회 간의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과학·수학·정보교육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과의 기초·기본 소양뿐 아니라, 교과 지식을 활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교과가 융합된 주제 중심형 프로젝트 학습이 강화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란 모듈별로 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부는 여러 교과가 융합된 주제 중심 프로젝트형 과목을 신설하여 정규 수업에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택하고 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교육과정 연계형 프로젝트 수업도 활성화한다.

또한, 교사 융합학습공동체를 지원한다. 다양한 교과 교원들이 협력하며 융합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충북 솔밭중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업으로 2016년부터 교과 간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해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솔밭중처럼 학교 내 교원 간의 자생적인 융합학습공동체 운영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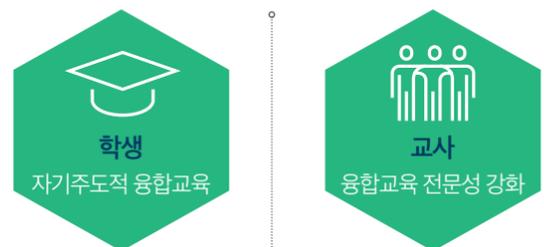
특히 교원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능동적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먼클라우드(사전에 등록된 강사의 온라인 강의,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 등 제공), 마이크로 러닝(교사주도로 원하는 연수를 선택·이수할 수 있는

서비스), 블렌디드 러닝(온·오프라인 연수) 등을 도입한 맞춤형 자율기획 연수 플랫폼을 구축한다.

융합교육이 실현되는 공간과 환경도 구축된다. 디지털 교과서·첨단 학습도구(AR/VR, IoT) 및 온라인 학습환경(와이파이 등)을 구축하여 교과서와 책상 없는 융합형 미래 학습공간을 조성한다. 내년까지 모든 국립학교에 무한상상실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전국 1,000개교에 무한상상실,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융합공간을 조성한다.

도서관, 연구소 등 다양한 학교 밖 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하여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학교·지역사회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융합교육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가칭)융합교육체험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 또,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지역의 대학 및 기관, 기업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학교 밖 경험을 지원한다. ②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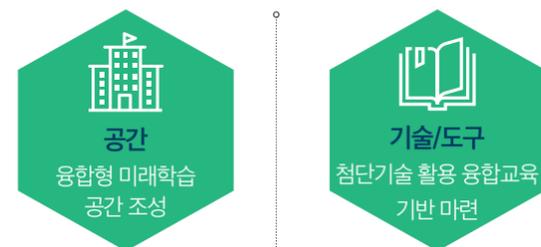


- 거꾸로수업 등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 도입
- 학생 융합동아리 지원 (~24년, 250팀)
- 모듈형 연수체계 도입
- 교사 융합학습공동체 지원 (~24년, 250팀)

- 자율기획 연수플랫폼 구축
- 융합교육 수혜 학생·교사 확대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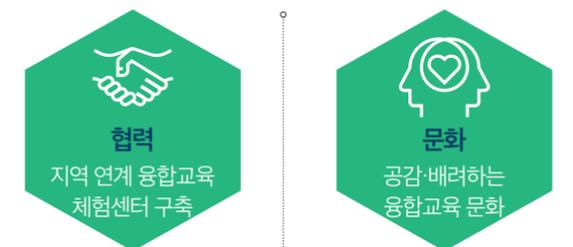
- 융합형 학습 놀이터 마련
- 학교안팎 학습공간 연계 *도서관, 박물관, 대학 연계
- 지능형 학습 분석플랫폼 구축
- 첨단기술 접목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 교과서 없는 학습공간 조성



(STEAM교육)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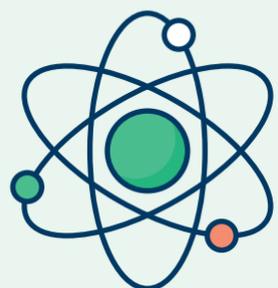


-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확산
- 학교 지역주민 대상 콘텐츠 보급
- 소외계층 대상 융합교육 기회 확대 *멘토링 및 놀이 중심 프로그램 개발 (~24년, 20종)

-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STEAM교육)



안정적인 등교 · 원격수업 병행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평가부담 완화,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
가정학습 활용 등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해설하고
교육계의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더 넓고 깊게 소개합니다.

— 더 넓고 깊게 소개하는 교육정책



1. 교사·학생의 평가 부담 완화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 △ 교과목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재난에 준하는 경우
지필평가만으로 평가 실시 가능(호형 개정 예정)

※ 수행평가 반영 비율(평균 39%~22%) 및 영역
(1영역 이상 8개칭, 2영역 이내 1개칭, 학교장 결정 8개칭) 조정 완료



2.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등교 중지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습결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격차 발생을 예방합니다.

대상	운영 주체	대체학습 수업 형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강의 콘텐츠 및 과제 제시형 수업 제공 • 교과별 대면 수업 실시간중계 및 녹화 강의 제공 • 교사별, 학교별 원격 플랫폼 운영 ※ 중앙반딧, 삼천포블로그, 에듀블로그, 아꿈선(대학) 등
등교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및 가정학습 플랫폼 운영 ※ (대구) 학교기자.com, (부산) 원터치 공부방, (충북) 비로학교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방송통신중·고 교과 콘텐츠 ※ 학교 온(on), 에듀넷 타-클리어 등

3.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확대 및 유치원 도입

✓ 초등학교 기준, 교외체험학습 일수 확대

평균 20일

평균 38일
확대

※ 특히, 서울, 인천, 경기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확대

✓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에게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비 정상 지원 (수도권 지역)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보장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34 정책을 말하다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배달합니다"
- 38 교육자치시대
대전시교육청_위(Wee) 프로젝트
- 41 이달의 교육뉴스
- 44 이슈
코로나19 대응 'K-방역' 제8차 웹세미나 개최

66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배달합니다

99

글 이순이 편집장



- 급식예산 3,684억 투입, 499만여 학생 가정 지원
- 37,000톤 농산물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울산·부산·세종·제주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가정 살림에 도움 되는 '농산물꾸러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초6, 고1 자녀를 둔 이상은 씨는 지난 6월 24일 교육청에서 학생 가정에 지급하는 농산물꾸러미를 전달받았다. 꾸러미 안에는 쌀 5kg과 감자, 당근, 콩나물, 파프리카, 피망, 표고버섯, 대파, 블루베리 등 아이스박스에 친환경농산물이 가득 들어있었으며, 농협몰 포인트 5만 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자도 받았다.

이상은 씨는 "1월 초경에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마친 두 자녀가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고 새 학년 온라인 개학까지 이뤄지면서 장장 5개월을 집에서만 머물러왔다"라며 "학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교급식이 누군가에게는 골고루 영양을 갖춘 감사한 한 끼라는 것을 깨달았다. 농산물꾸러미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정 살림에 도움도 되고 우리 농가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농산물꾸러미를 반겼다.

경기도 내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은 169만 3천여 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 1,700억 원(교육청 879억, 경기도 235억, 시·군 586억)을 투입해 각 학생 가정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원한다. 식재료꾸러미는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7월 말까지 배송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학부모가 농협몰을 통해 쌀, 과일, 채소, 축산, 수산, 김치,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기회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499만여 학생 가정에 식자재 공급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학부모와 농가,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6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약 3만 7천 톤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급식업계 관련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99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현장지원단을 구성, 공급 농산물의 품질·위생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부산 기장군에서 참여하며 499만여 명의 학생 가정에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한다.

10개 지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며, 4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세종)과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는 쌀을 제공한다. 한편, 5개 지역(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개별 품목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지역(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세종은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병행하였다.

3만 7천 톤 농산물 소비, 식품업계에 큰 도움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약 3만 7천 톤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급식업계 관련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 규모에 대해 지역별 예산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과일·채소류는 농산물꾸러미 공급을 통해 약 1만 8천 톤, 쌀은 약 4천 톤, 기타 약 1만 5천 톤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전남, 전북, 경북 3개 지역의 농산물 소비 규모를 파악한 결과, 총 3만 8천 톤의 농산물이 소비되었으며, 이 중 곡류 및 서류(감자, 고구마 등)는 2만 2천 톤, 채소류는 1만 6천 톤, 과일류는 100톤이었다.

그동안 공급에 큰 차질을 겪던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꾸러미사업과 학교급식 재개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전망되어 농가와 공급자 등의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좋은 사업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99

[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역별 현황

분류	지역 (교육청·지자체)	공급방식		공급대상 (단위: 만 명)
		지원방식/1인	공급 시기	
꾸러미 사업 참여	전남	꾸러미(4만 원)	4월(완료)	22.7
		남도장터포인트(4만 원)	6~7월	
	전북	꾸러미(3.2만 원)	5월(완료)	21.4
	경북	꾸러미(3만 원)	5월(완료)	26.5
	충북	꾸러미(5만 원)	5월(완료)	18.3
	강원	꾸러미(5.5만 원)	5월~	17
	부산 기장군	쌀(3만 원)	5월~	2.8
	광주	꾸러미(3.5만 원)	5월~	19.7
	경남	꾸러미(3만 원)	5월~	37.5
	대구	은누리상품권(3만 원)	5월(완료)	(25.6)*
	세종*	쌀(3만 원)	5월~	5.2
	서울	친환경쌀(3만 원)	6~7월	86
		꾸러미(3만 원)		
	인천	농협물포인트(4만 원)	6~7월	30.3
	대전	쌀-잡곡(3만 원)	6~7월	18.6
		농협상품권(7만 원)		
	경기	꾸러미(5만 원)	6~7월	169.3
		농협물포인트(5만 원)	6~9월	
충남	꾸러미(3만 원)	6월~	23.7	
계(14개 지역, 1개 군)				499
기타**	울산	재난지원금(10만 원)	5월~	15.1
	부산	재난지원금(10만 원)	6월	30.7
	세종	재난지원금(5만 원)	6월	(5.9)**
	제주	재난지원금(30만 원)	6월	8
	계(4개 지역)			
총계(전국 17개 지역)				552.8

* 세종은 쌀 꾸러미 및 재난지원금 병행 지급
 ** 울산·부산·세종·제주는 구매품목(농산물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재난지원금 등 지원
 (*) 바우처 단독 지급은 꾸러미 공급 대상 집계에서 제외
 (**) 인원수 중복 방지 차원으로 총계 집계에서는 제외

대전시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해 위기학생 예방

위(Wee) 프로젝트란 위기학생을 예방하고 상담·치유 등 지원체계를 갖춰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가정형 위(Wee) 센터, 위(Wee) 스쿨 개소, 전문 상담 장학사 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Wee) 프로젝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단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위(Wee) 프로젝트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글 양지선 기자



66

전문 상담인력
연수를 확대해
역량을 키우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상담 만족도가
높아졌다.

99

대전시교육청은 위(Wee)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Dream & 드림 멘토링(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 결연) △희망메아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 및 문화체험활동) △정신과 자문의 자문·교육 △SOS 위기지원단(자살 고위기군 학생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지원) △찾아가는 학교상담 'Re-born' △학부모보듬위원회(정서적 취약 학생 대상 1:1 상담 및 컨설팅) △학업중단속려제 'Dream Map'(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업 지속 유도)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변함없이 상담 환경을 조성했다. 모든 학교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위(Wee) 프로젝트 상담 지원을 안내하고, 5개 위(Wee) 센터 점검을 통해 등교수업 대비도 완료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위기 학생 지원 지속

위(Wee) 센터에서는 현재 온라인과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있다. 고위기 학생의 경우 방역 공간에서 면대면 상담이 이뤄지며 전문심리치료기관의 찾아가는 컨설팅 및 상담, 드라이브 스루 가정방문(1:1 상담, 반찬 나누기)도 지원한다. 교수, 경찰관, 상담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학부모보듬위원회는 맞벌이 가정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방치되는 학생들에게 심리상담·생활지원 멘토링을 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가 참여하는 'Dream & 드림 멘토링' 프로그램은 원격 화상면접을 통해 17명의 대학생 멘토들을 선발했다. 다만 본래 진로교육이나 캠프 등 외부 체험활동 위주로 이뤄지던 프로그램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활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 단위 소규모 활동 프로그램도 구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 자녀 간에 가정 내에서 자주 부딪치며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 류태자 장학사는 "모든 위(Wee)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학부모 동행프로그램이 많다"라며 "학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위기를 함께 인지하게 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 부담이 급격히 줄어들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을 통해 가족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1 _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전문상담 컨설팅 모습

2 _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작한 위(Wee) 프로젝트 홍보자료



전문 상담인력 연수 확대·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강점

대전시교육청은 단위학교 내 위(Wee) 클래스 252곳, 공립형 중학교인 위(Wee) 스쿨 1곳, 교육지원청 내 위(Wee) 센터 3곳, 남/여 가정형 위(Wee) 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형 위(Wee) 센터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돌봄, 상담, 교육이 지원되는 특화 센터로, 지난 2010년 대전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선보인 모델이다.

여학생 가정형 위(Wee) 센터는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평균 88%의 학교 복귀율을 기록하며 지난 2월 '제9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담당자 부문에서도 대상을 고루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류 장학사는 “전문 상담인력 연수를 확대해 역량을 키우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상담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며 “위(Wee) 클래스와 센터 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으로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Wee) 프로젝트가 학교상담법의 부재로 인해 관련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계점으로 꼽혔다. 류 장학사는 “상담인력의 처우와 관련하여 상담 기록·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근거 자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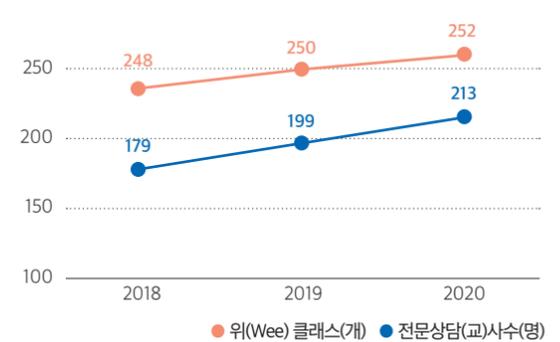
모든 특수학교 내 위(Wee) 클래스 구축 예정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지역 단위 전문 상담연수를 확대해 위(Wee) 프로젝트 운영을 한층 더 내실화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전문 상담인력 배치율이 31%로 낮은 만큼 위(Wee) 클래스 미배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 순회교사의 방문상담을 확대한다. 또한, 현재 특수학교에는 위(Wee) 클래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20년도 3개교, 2021년도 3개교에 구축하고 상담인력을 배치해 모든 특수학교에도 위(Wee) 클래스가 마련되도록 할 예정이다. ㉔

[그림1] 대전시교육청 위(Wee) 센터 이용 전후 학교생활 만족도 비교 (10점 만점)



[그림2] 대전시교육청 위(Wee) 클래스·전문상담(교)사 현황 (2020.3.1. 기준)



EDUCATION NEWS

01 기능경기대회 수준 높이고 학생 참여 여건 개선한다

- ① 학생부·일반부 분리 등 불필요한 경쟁 완화
- ② 3D프린팅·드론 등 산업 현장변화에 맞는 직종 개편 추진

과잉경쟁, 입상자 취업 저조 등의 논란이 이어져 온 기능경기대회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대회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도한 경쟁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과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 단위로 문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 과제에 대한 반복 훈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및 현장적응력을 제고한다. 또한, 연이은 대회로 인한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대회 개최를 방학기간으로 조정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기능경기대회의 현장성과 취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디지털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사양 직종은 폐지하는 등 운영 직종도 개편한다.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 운영하여, 학생부를 학교수업과 연계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일반부는 보다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도록 한다.

기능대회 준비 여건 및 인프라 개선

이와 함께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술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전공심화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방과 후에 운영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자유롭게 입·탈퇴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규수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22시 이후 야간교육, 휴일교육 및 합숙교육이 금지되며, 정기·수시 상담을 통한 심리 방역도 강화한다.

[표] 중장기 기능경기대회 관련 개선 전략

구분	현재('20년)	단기('21~'23년)	중장기('24년~)
지방기능경기대회	학교 기능반 중심 출전	자발적 동아리 활동, 문제은행 출제	산업별·업종별 대회로 전환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대회 1·2·3위 전국대회 참가	· 지방 1·2·3위+우수상 → 전국대회 참가('21년) · 전년도 1·2위 참가 → 국가대표 선발	· 산업별·업종별 대회 입상자 등 전국대회 참가 (사도 주관 등) · 학생부와 일반부 분리
국가대표 선발전	2개 년도 전국대회 1·2위	전국대회로 통합('22년)	학생부, 일반부 1·2위 중 국가대표 선발

EDUCATION
NEWS

02 정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관련 긴급 대책 추진

- ▶ 교육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긴급대책반 구성
- ▶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 급식안전성 전수점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생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관계기관은 국장급 대책반을 구성하여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역학조사 및 현장안전 점검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위생관리 준수 철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강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학교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급식 관리(가열식품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존식 보관 기준(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취약학교에 대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 지원, 조리종사자 대상 급식 위생 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관리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치원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급식 운영·위생 관리 지침서' 개발과 유치원 급식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으로 유아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 급식소 4,031개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식품안전 전반사항을 점검하여 위생을 소홀히 하는 급식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 지원 시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03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 개시

- ▶ 컴퓨터·모바일로 소청 절차 진행 및 과정 확인
- ▶ 등기 송달·수령에 따른 기존의 불편함 해소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알 권리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소청심사 처리 방식이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통한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심사 청구, 심사 진행 과정 확인을 위해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소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심사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교원의 권리구제 확대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 예시]



04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내 서비스 개시
- ▶ 장애대학생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및 대입정보 등 한곳에서 제공

이제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정책과 대입정보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지난 6월 30일 '장애대학생' 메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외에는 장애대학생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고, 정보가 흩어져 있어 검색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홈페이지 '장애대학생 지원정보' 게시판에서는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과 장애대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진로·취업' 게시판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정보와 거점대학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특별전형 등 입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및 대학의 장애학생 재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를 연결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2021년에는 대학 정보공시에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는 등 장애대학생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①

코로나19 대응 'K-방역' 제8차 웹세미나 개최

원격수업 토대로 미래교육 혁신 추진

글 편집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나라 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8차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른바 'K-방역'이라 불리는 한국식 방역체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IT 및 통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주제로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개학'을 주제로 한국의 온라인 개학 시행 과정에 대해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등교수업을 세 차례 연기하고, 지난 4월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라며 "전국 540만 명의 초·중·고 학생이 원격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민간과 협력해 원격수업용 콘텐츠를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 인프라 확충·원격수업 지원체제 운영

교육부는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의 인프라를 증설하고, 안정성 유지를 위해 민관합동 원격수업 점검 TF와 실시간 현장기술상황실을 운영해왔다. 또, 원격수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하기 위해 교원 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원격교육 시범학교 495개교 지정을 통한 모범사례 공유 △학교별 원격수업 대표교원 1만 명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 운영 △1:1 원격접속을 통한 교사 지원단 '교사온' 운영 등이 그 사례다.

지난 4월 말 교육부 조사 결과 교사 중 33%는 온라인 개학을 위한 수업자료를 스스로 개발해 활용했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등교수업과 연계해 원격수업을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44%에 이르렀다.

김진숙 본부장은 "여러 국가에서 한국은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격수업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선생님들도 원격교육의 교육적 잠재성을 인식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기기 지원·맞춤형 학습 이뤄져

원격수업 관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타 부처, 공공기관, 민간 등과 협력해 스마트 기기를 학생에게 무상 대여하고,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게 지원했다.

원격수업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도 이뤄졌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1:1 방문교육이 이뤄지거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운영해 맞춤 지원이 이뤄졌다.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원격수업의 경험이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로 혁신하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공감과 실천이 원격수업의 바탕이 됐다."라며 "이번 경험으로 미래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 과학기술·ICT·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책 공유
-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웹세미나 개최
- 온라인 개학 운영 성과 및 미래교육 연계 방안 발표

함께 교육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웹세미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이대훈 (주)씨젠 미래기술연구소장)',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주제로 한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영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된 이번 웹세미나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홈페이지(www.medicalkoreawebinar.or.kr)에 접속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②



원격수업 관련 Q&A

Q1.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 실질적 효과가 있었나?

A. 우리나라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환경이다. 문제는 스마트 기기를 구비하는 것인데, 교육부·시도교육청·각 학교는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스마트 기기를 지원 요청하는 모든 가정에 보급했다. 학교에서 이미 갖고 있던 기기와 함께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2주에 걸쳐 대여가 완료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98.9%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Q2.
향후 한국형 원격수업의 방향은?

A. 이번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미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기본요소는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 국민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다. 정부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주요 가치로 하는 만큼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고, 원격수업을 비롯해 교육체제 전반을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 교육과정에 상상력을 입혀라

글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



서울 H초등학교 교사

“우리 학교는 학년별로 주 1회 등교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격수업은 에듀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학습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진도는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충 설명하거나 쪽지 시험 등 평가를 주로 하고 있어요.”



경기 J중학교 교감

“우리 학교는 이번에 블렌디드 러닝 체제를 구축하면서 한 학급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구분하여 오전반 수업 시 오후반 학생들은 오전에 원격수업을 하고, 오후반 수업 시 오전반 학생들이 온라인 예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학급 인원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플립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보수적인 우리 교육 문화를 크게 바꾸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가 등교개학을 연기하다가 결국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재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이른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당장 학교 안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말았다. 코로나19는 당분간 확산과 진정, 재확산 등의 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종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과 블렌디드 러닝 체제는 임시방편적인 수단이 아니라 상시적인 교육체제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 방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블렌디드 러닝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면, 이제는 우리 학교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블렌디드 러닝이란 무엇인가?

블렌디드 러닝이란 혼합형 학습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대개 대면수업(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를 말한다.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 비대면수업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 ☑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다.
- ☑ 교실 벽을 넘어 다른 학급, 다른 학교, 다른 나라 학생들과 협력 학습이 가능하다.
- ☑ 상시 공개 수업을 통한 수업의 질 관리가 가능하고,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 ☑ 에듀테크(스마트수업 등)가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의 장점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다.

- ☑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이 쉽지 않다.
- ☑ 교사의 실재감이 낮아서 의미있는 대인 관계를 맺는 데 한계가 있다.
- ☑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피드백이 어렵다.
- ☑ 지식과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역량을 기르기 쉽지 않다.
- ☑ 실험, 실습이 불가능하다.
-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생, 장애학생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 ☑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준비 부담이 크고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이 힘들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모델이 있다. (마이클 혼 외, 2015)

☞ 순환 모델

순환 모델은 교사의 통제에 따라 먼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대면수업 입장에서 원격수업으로 구현하기 좋은 것을 수용한 형태이다. 순환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이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통해 지식을 익히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교실)’이다.

☞ 플렉스 모델

플렉스 모델은 방송통신고등학교처럼 기본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하기 힘든 체육대회, 입학식 각종 행사, 시험 등을 대면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알라카르테 모델

알라카르테 모델은 학생이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대면수업에 참여하지만 선택 과목 등 일부 과목은 온라인 과목으로만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66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99



가상학습 강화모델

가상학습 강화모델은 필수 과목 등 일부 수업시간만 대면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 2~3회 대면수업을 하거나 오전이나 오후만 나와 대면수업에 참여한다. 원격수업에 대한 비중이 플렉스 모델과 알라카르테 모델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

그런데 현재 블렌디드 러닝 체제는 방역 차원에서 도입되다 보니 원래 블렌디드 러닝 방식대로 운영하기 힘들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생 간 상호 접촉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은 한계가 있다. 예컨대, 플립 러닝(거꾸로 교실)의 경우, 현재의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학생 상호 간 대면활동을 시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일제학습은 원격수업이 보다 유리하고, 개별학습은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면수업은 수행평가나 요점 정리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그리고 사교육에서 대면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에서만 비대면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현재 상황은 방역 차원에서 블렌디드 러닝이 도입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파행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현실을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한 느낌이 강하다.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수업 방식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핵심은 과목 특성이나 학습 주제 특성상 원격수업으로 하기 좋은 것은 온라인에서 구현하고 대면수업으로 하기 좋은 것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플립 러닝이다. 기존 플립 러닝 방식 말고도 새로운 수업 접근이 가능하다. 예컨대, 하브루타 수업, 문제 중심(PBL) 수업, 토의 토론 수업 등 이미 대면수업에서 검증된 수업 방식으로 원격수업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으로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브루타 원격수업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학습 내용을 토대로 퀴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을 퀴즈 문제로 출제하거나 자유 질문들을 만들고 그중에서 대표 질문을 선택하여 자기 생각을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원격수업에서만 가능한 수업이 있다. 디지털 위성 지도를 활용한 지리 수업이나 코딩 수업,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방탈출 게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 맞춤형 수업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기존 수업 방식으로 넘어 블렌디드 러닝 방식에 맞는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블렌디드 러닝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키우기

블렌디드 러닝은 단순한 수업 방법의 혁신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필자는 예전에 미인가 대안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라카르테 모델 방식으로 직접 고교 수업을 한 경험이 있다. 작은 대안학교이다 보니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을 모두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택과목 중 소인수 과목의 경우, 학생들이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해당 과목 교사가 학습코칭 방식으로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평가를 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학습효과도 좋았다. 적은 수의 교사로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블렌디드 러닝 체제는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 기존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에서 다루는 학습 주제와 방식이 각기 달라야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교육과정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수업에서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대면수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PBL) 수업 등 다양한 대면 활동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 수업 시 재수강 과목의 경우 보충수업이 가능하고,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운영한다면 주 1~2회는 등교수업 대신 가정에서 오전에 온라인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 체험 활동을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미래 교육 담론에서 학습공원과 학습 조직 네트워크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글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학업중단 학생 수는 최근 4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학교 졸업을 기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가 학위나 자격 획득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통과했음을 축하하기 위한 동시에, 이어지는 단계의 새로운 학교/직업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한 모든 학생이 졸업이라는 통과(通過)의례(儀禮)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실도 함축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많은 수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 수행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학업중단학생 규모에는 몇 차례 변곡점이 있었다. 우선 2010년 76,589명까지 증가했던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는

이후 차츰 감소하여 2015년에는 47,070명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4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한 증가세로 돌아섰다([표1] 참조). 이러한 경향은 [그림1]에서와 같이 전체 학교급별 학생 수 규모를 고려한 학업중단율로 표시하면 더 명확해진다. 우선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가장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도의 수치가 2009년과 비교해 큰 편차가 없지만(1.62% vs. 1.76%), 그 사이 기간에 나타난 최고-최저치의 등락 폭은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1.98% vs. 1.26%).

현재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통용되는 학업중단학생의 기준이 고등학교의 학업중단학생 기준과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학업중단학생은 크게 유예와 면제로 구분하는데, '유예'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을 말하며, 유예의 사유로는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기타 사유 등이 있다. '면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학생을 말하며 면제 사유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과 해외출국, 기타로 분류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학생을 훨씬 세분하는데 유예와 면제 이외에도 자퇴, 퇴학, 제적 등의 이유를 구분하고 있다. '자퇴'의 경우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학생 스스로가 학적을 포기하는 경우이며, 그 사유는 질병, 가사, (학교)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퇴학'의 경우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에 의한 자퇴와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자퇴로 구분한다. 끝으로 '제적'의 경우 자퇴나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아니라 행방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을 말한다. [그림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들의 대부분(95% 이상)은 '자퇴'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퇴학, 제적, 유예, 면제의 순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개별 학업중단 요인의 순위와 전체 학업중단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자퇴에 속하는 '부적응' 요인들의 경우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51.58%에서 27.90%), 기타로 구분되는 자퇴생은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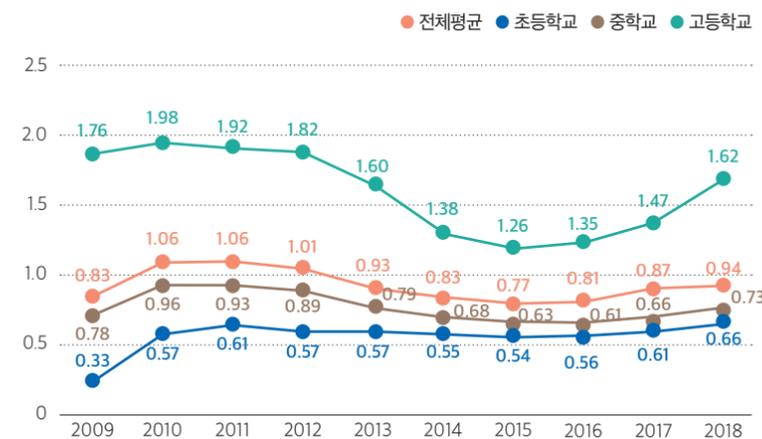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년 상반기 유·초·중등 교육기본 통계조사 지침서」, 연구자료 CRM 2020-28.

[표1] 학업중단 학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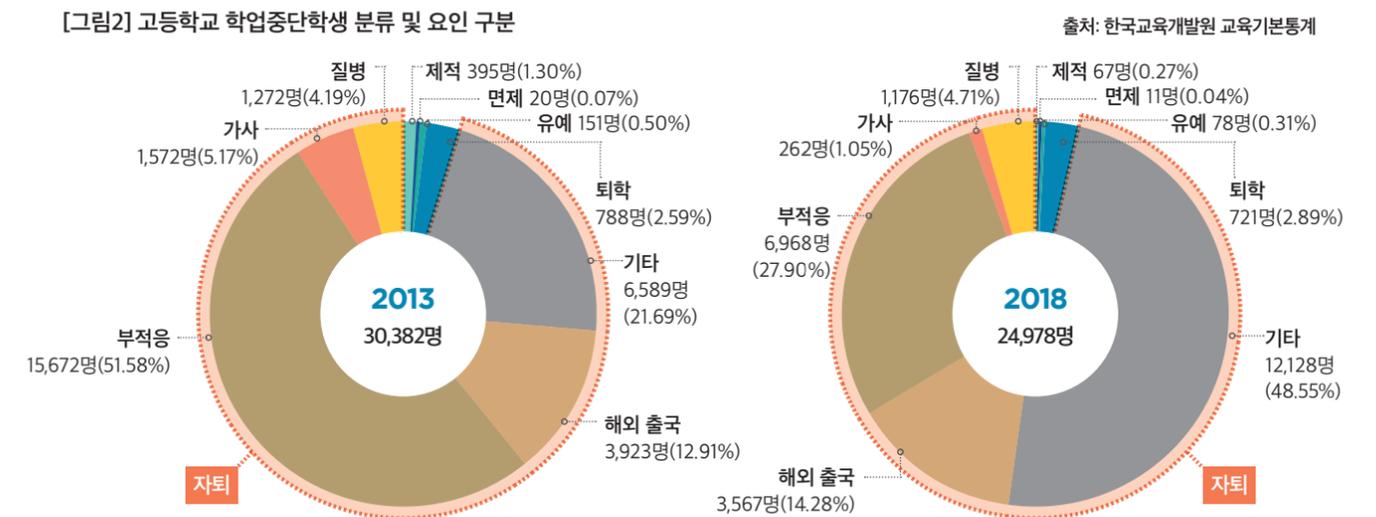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09	11,634	15,736	34,540	61,910
2010	18,836	18,866	38,887	76,589
2011	19,163	17,811	37,391	74,365
2012	16,828	16,426	34,934	68,188
2013	15,908	14,278	30,382	60,568
2014	14,886	11,702	25,318	51,906
2015	14,555	9,961	22,554	47,070
2016	14,998	8,924	23,741	47,663
2017	16,422	9,129	24,506	50,057
2018	17,797	9,764	24,978	52,53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그림1]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변화(2009~2018)



[그림2]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분류 및 요인 구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스마트팜 분야

ICT기반 '똑똑한 농장'으로 청년농부 키운다



국내외 동향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생산시설에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원격 혹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을 뜻한다. 농가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에서 나아가 2세대 스마트팜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물의 성장과 수확량, 수확시기를 예측해 정밀하게 생육환경을 관리한다. 또, 3세대 스마트팜은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과 융합해 농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농작업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다.

국내 스마트 농업 생산 관련 시장은 2015년 3조 6,051억 원에서 연평균 14.5%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5조 4,0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농업 생산 시장 규모 중 스마트팜의 비중은 약 42%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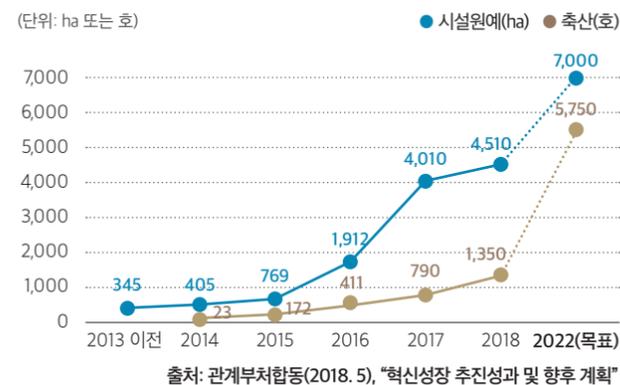
연도별 스마트팜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시설원예는 2014년 405ha에서 2018년 4,510ha까지 면적이 늘어났고, 축산분야(스마트축사)는 같은 기간 23호에서 1,350호까지 호수가 증가했다. 2020년까지 시설원예 7,000ha와 축산분야 5,750호로 늘리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한다.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별 농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대규모 영농뿐 아니라 소규모 농업에서도 ICT를 도입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모델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1] 스마트 농업 분야 관련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그림2] 연도별 스마트 팜 보급 실적(누계)



산업전망

-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원격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기계 자동화 등 농업 ICT 융합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농기계 제조업체, IT 기업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농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화함
- 미국**: 미국 샐러드 채소의 80%를 생산하는 샬리나스 밸리에서는 ICT기술을 접목해 생육 환경이 센서를 통해 자동 모니터링되고, 드론을 개발해 농사에 활용함. 자율주행 가능한 로봇형 트랙터 등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
- 네덜란드**: 1990년대 이후 정부 주도 아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현재 농업의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력이라고 할 수준으로 첨단화됨. 2010년부터는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에너지 사용량 억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목표로 함

스마트팜은 핵심 미래 성장산업으로 시장 규모가 꾸준히 늘어날 뿐 아니라 정부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2014년 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연평균 36.4%씩 증가해 2018년 761억 원에 도달했다. 스마트팜 관련 R&D 예산에도 같은 기간 54억 원에서 연평균 57.9%씩 증가해 2018년에는 336억 원을 투자했다.

청년들이 초기 부담 없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대상 시·도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4개 거점별 핵심시설(기반조성, 청년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기획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도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2021년부터 7년간 총 3,867억 원(국비 3,333억, 민자 534억) 규모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존 스마트팜 R&D가 농업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면, 이번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을 구현하고자 한다. 3개 부·청은 범부처 스마트팜 R&D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는 별도의 사업단을 설립하고,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⑦

정리 편집실

참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10), "R&D KIOSK 제53호 '혁신성장선도사업 스마트팜' / 국회입법조사처(2019.12), "NARS 현안분석 제95호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 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 혁신성장 직업전망



코로나가 바꾼 유치원 풍경

글 구영목 혜화병설유치원 부장교사



12 _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마스크로 가린 입이지만 그 안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풍경 하나,

선생님은 계획이 다 있었다

3월 초, 코로나19로 인해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마다 긴급 돌봄이 시작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학부모님들은 선뜻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누비던 유치원 곳곳은 정적만이 흐르고 웃음소리와 재잘거림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취하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화기 저편에 들리는 자그마한 목소리에 가슴이 쿵닥쿵닥하는 설렘과 함께 나도 모르게 입가에 열은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였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 매일 안전 수칙을 담은 문자를 보내고, 연령별로 엮은 놀이 중심의 활동지들을 구성하여 배부했다. 한편으로는 숙제를 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기우였다. 아이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표현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덕분에 더욱 힘이 났다.

애들아! 보고 싶다

스승의 날, 유치원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였다. 졸업한 아이의 편지일까? 약간의 기대 부푼 마음에 편지 봉투를 본 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봉투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였다. 올해 신입 유아의 편지였다. 그 이름은 한다연. 글씨에서도 수줍음이 보이는 다연이의 편지 속 내용은 나를 몽클하게 만들었다. “선생님!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가서 신나게 놀고 싶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편지 한 통으로 소중함과 감동을 담은 날이 아닐 수 없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페터루스는 평범한 일상에 충실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비범함이 나타난다고 했다. 지금 현 상태가 평범한 일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상을 바라는 마음을 모아 이 상황을 충실히 이겨낸다면 오랜 기간의 공백 끝에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풍경 둘,

풍경 셋,

그토록 기다린 아이들과 마주하다

이토록 기분 좋은 떨림과 설렘을 느끼게 될 줄이야! 드디어 등원이 시작된 날, 유치원 현관에서 아이들을 처음 마주했다. 크게 웃음 지으며 “선생님~~” 하고 부르는 아이, 어색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이,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선생님을 봤다며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아이 등등...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만났다. 바깥세상에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를 잊을 만큼 알콩달콩 재미난 시간을 이어나갔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생일 축하식, 텃밭에서 무럭무럭 자란 모종들에게 인사도 하고, 우리 기관만의 특색교육인 염색 티셔츠 만들기 체험활동 등등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

그런데 개학을 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한 아이가 가방 속에서 엄마가 보낸 편지를 꺼내 들고 다가왔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동안 유치원에 가고 싶어 했던 우리 성현이가 요 며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정말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놓이고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낯설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동안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기 연습하며 유치원 개학 준비를 했어요. 잘 지켜봐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원을 하며 인사하기 전, 아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애들아! 선생님은 엄청난 위기에 힘이 더 세지고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있니? 아이언맨보다, 스파이더맨보다 말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힘을 합쳐 잘 이겨내 보자.” 나를 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코로나가 끝날 날이 꼭 올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 ㉠



상상적 여행의 감동과 울림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글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어니스트 헤밍웨이 Ernest Miller Hemingway

『노인과 바다』(1952)로 풀리처상,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문명의 세계를 속임수로 보고,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묘사한 20세기의 대표작가이다.



66

우리도 언젠가
광활하게
펼쳐진 거칠고
아득한 바다로
나아가,
산티아고
노인처럼,
강인한 의지로,
스스로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99

The Old Man and the Sea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이들의 활동 반경이 위축되고 있고, 모험적 삶의 순간을 허락했던 여행의 의미도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다. 어느새 사람들은 해외보다는 국내, 복잡한 곳보다는 호젓한 곳을 선호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풀어줌으로써 성숙한 자아로 발돋움하게 해주던 여행이 방 안에서 치르는 독서 형식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물론 여행이란 복귀를 전제로 하는 떠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귀환의 형식을 띤다. 하지만 돌아온 자아는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다. 새롭고 낯선 경험을 받아들인 탓에 그는 이미 한 차원 달라진 존재로 몸을 바꾼 것이다. 일상을 떠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 보는 책으로의 여행 역시, 천천히 사라져가지만 그 사라짐의 눈부심으로 빛나는 역설의 순간을 만나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 눈부신 역설의 순간을 담은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한번 소환해보자.

운명과 맞서 싸우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오랫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다른 어부들의 놀림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카리브해로 배를 끌고 나간다. 어느 날 만난 엄청난 크고 고기는 미끼를 물고는 바닷속을 헤엄쳐 노인과 배를 밤새도록 끌고 다닌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죽을힘을 다해 고기를 끌어 올려 배에 붙들어 맨 채 집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그런데 그때 상어가 습격하여 노인이 힘들게 잡은 고기를 뜯어 먹기 시작한다. 다시 노인은 노 끝에 칼을 매고 상어와 힘겹게 싸워 항구로 돌아왔지만 이미 고기는 빼만 남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노인은 그 참담한 결과에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밤에 혼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에 빠져든다.

소설이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담는다고 할 때 ‘노인’은 강렬한 의지를 가진 인간을, ‘바다’는 거칠고 고된 현실을, ‘고기’는 인생의 목표를, ‘상어’는 삶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이 상징들을 통해, 비록 인간이 패배할지라도 그 패배에서 오히려 역설의 존엄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황폐한 현실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고, 좌절을 모르는 한 노인에게서 험난한 운명과 맞서 싸우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삶이 모험적 여행임을 은유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산티아고 노인을 따라가면서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하게 되고, 그가 지나온 낯선 흔적을 따라 말할 수 없는 상상적 여행의 감동과 울림을 한껏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 광활하게 펼쳐진 거칠고 아득한 바다로 나아가, 산티아고 노인처럼, 강인한 의지로, 스스로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넓이보다는 깊이의 여행을 위하여

진정한 여행은 오지를 찾아 나서는 열정에 의해 완성된다. 오지라는 말에는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과 오랜 자연스러움이 담겨 있고,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빛어내는 놀라운 순간적 통일성이 깃들여 있다. 벤야민(W. Benjamin)은 세계와 내면의 순간적 통일성을 “아우라(Aura)의 경험”이라고 말할 바 있는데, 이러한 ‘아우라’를 가장 순연하게 간직한 곳이 바로 오지일 것이다. 우리가 책을 통해 만나는 오지는 산간벽지 같은 주변부이거나, 사람들이 가닿기 어려운 정선의 극한이거나, 사람들 흔적이 드문 간이역이거나, 꿈속에서나 가볼 수 있는 격절의 공간일 것이다. 그때 우리의 여행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 곧 얼마나 더 많이 가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깊이 아우라에 닿아보았느냐의 문제로 수렴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문학 작품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이 낯선 팬데믹(pandemic)의 시대에도 거듭 새로워진 자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고3 입시 어떻게 준비하죠?

글 최승후 대화고등학교 교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교사의 질문

코로나로 인해 올해 대학 입시전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비교과 활동에 공백이 생기고, 온라인 수업 내용으로 내신 평가를 치르게 되는 등 학생 평가 방안도 고민입니다. 고3 학생들 사이에선 재수생에 비해 불리한 점이 너무 많으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대입,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A ‘고3 첫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말은 낭설이다. 수능까지는 긴 여정이다. 공부량이 늘어나면 성적은 오르기 마련이다. 첫 모의고사 성적은 수시와 정시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잣대로만 활용하면 된다. 내신이 우수한 학생은 수시에, 수능이 우수한 학생은 정시에 더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수시와 정시 모두 대입 성공 전략의 출발점에는 반드시 수능이 있어야 한다. 정시 포석이 되어야 수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른바 ‘수시의 정시화 전략’이다. 3학년 1학기까지 수시에 집중하고, 2학기에 정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현명한 대입전략이 아니다. 입시의 시작은 수시고 종착은 수능임을 명심하자.

‘선택과 집중’ 전략이 세워진 뒤에는 희망 전형에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23일(수)에서 9월 28일(월)까지다. 원서접수 뒤에는 논술, 면접, 적성, 예체능 실기 고사 등의 대학별 고사와 자기소개서 제출이 바로 시작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기말고사 전에 자기소개서 초고 작성을 권하고 싶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입학사정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교과성적’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몰입하고 수업과 관련된 자신의 학업역량을 드러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내신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기말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희망 대학의 내신 반영 교과, 학년별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면 된다.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다.

논술전형을 준비한다면,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유형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인문계는 수학, 자연계는 수학/수학+과학/과학 제시문 출제 여부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을 선택해서 집중하자. 올해 실시되는 대학별 모의논술 참여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적성전형은 수학에서 변별되므로 수학 기출문제를 풀어본 후 응시 여부를 결정하길 권한다. 영어 성적이 우수하다면 수학 성적을 보정할 수 있으므로 영어 영역을 치르는 대학이 당연

히 유리하다. 적성고사 역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준비의 첫걸음이다.

예체능 실기전형은 실기준비만 해서는 안 된다. 비실기 전형이 늘어난 만큼 수능과 내신 공부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실기준비만 하다가 정시모집에 예체능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진학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학생부 교과성적과 비교과활동이 부족하다면 모집인원이 늘어난 정시모집 **수능전형**이 있다.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처음 적용되는 시험으로서, 2020학년도 수능 체제와 비교하면 국어, 수학 영역의 출제 범위는 달라지고 나머지 영역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국어 영역은 2020학년도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에서 출제됐지만, 2021학년도에는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이 출제 범위이며 공통시험으로 출제된다.

수학 영역은 2020학년도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학 나형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됐지만, 2021학년도 수학 가형의 출제 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 나형의 출제 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다. 논란이 많았던 ‘기하와 벡터’는 수학 가형에서 제외됐다. 반면, 수학 나형은 2009 교육과정의 미적분Ⅱ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을 다룬 수학Ⅱ가 포함됐다.

올해 수능의 난이도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수능 경향은 참고할 만하다. 2020학년도 수능은



2019학년도 대비 국어는 쉽게(그래도 난도가 여전히 높아서 변별력을 갖춤), 수학 가형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수학 나형은 어렵게, 영어는 쉽게 출제됐다. N수생들은 지난해 수능이 워낙 어려운 수능이어서 체감난도는 높지 않았다. 반면, 고3 수험생들은 영어를 제외하고 어렵게 풀었다는 학생이 많은 편이었다. 매년 바뀌는 수능 난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까지 EBS 연계비율이 70% 이상이므로 연계교재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건 자명하다. ‘혁신(革新)’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새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가죽의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되살려야 새로워질 수 있다. 고3 생활 동안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학년만 바뀔 채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혹시 공부는 하지 않고 고3이라고 허세만 부리는 건 아닌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학습장소, 스마트폰·컴퓨터 이용시간,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 자기주도학습시간, 기상시간, 수면시간 등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기를 권한다. 끝으로,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현재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학업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

[표] 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 입학전형 변경 사항 (가나다순)

대학	변경 내용
건국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특기자 전형: 비교과(출결) 항목 전원 만점 처리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화상 면접 도입 학생부종합전형: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
경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전형: 코로나19 상황을 봉사활동실적 출결사항 평가 등에 반영 학생부교과전형: 미인정 출결에 따른 감점을 완화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 원본서류는 합격자에 한해 제출 체육특기자 전형: 대회실적 제출기한을 연장 1~2학년 학생들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예정
경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실기우수자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출결 및 봉사) 만점 처리 재외국민 특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면접고사를 온라인 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해당) - 8월 예정된 '재외국민(해외근무자 자녀)' 필답고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수험생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시행, 자세한 면접과 평가 방법은 9월 24~28일 원서접수 기간 전 공지 예정 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1학기 비교과활동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학생 상황 고려해 평가 - 면접평가 시행방법 추후 확정 공지
계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특기자 전형: 대회 실적 반영 확대(고3 1학기 대회실적 미반영)
고려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녹화 면접 도입 학교추천, 학생부종합(일반-학업우수형): Pass/Fail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공개되는 간단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직접 녹화해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영상파일을 올리는 형식 학생부종합(일반-계열적합형): 비대면 방식, Pass/Fail 방식 비도입
동국대(경주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 전형: SAT 점수 미반영

대학	변경 내용															
서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비교과 만점 처리 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사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 미반영 - 3학년 1학기 활동(수상,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학생 상황 고려해 평가 시 반영 															
서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지역균형선발 수능최저완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변경후</th> <th>변경전</th> </tr> </thead> <tbody> <tr> <td>전 모집단위 (음대대학 제외)</td> <td>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td> <td>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2등급이내</td> </tr> <tr> <td>성악과/기악과 /국악과</td> <td>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4등급이내</td> <td>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td> </tr> <tr> <td>작곡과</td> <td>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td> <td>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2등급이내</td> </tr> <tr> <td>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기준</td> <td>2개과목 모두 3등급이내 음대(작곡 제외) : 2개과목 모두 4등급이내</td> <td>2개과목 모두 4등급이내 음대(작곡 제외) : 2개과목 모두 6등급이내</td> </tr> </tbody> </table> [정시] 교과 외 영역(출결, 봉사, 교과 이수기준) 미반영(기존 반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결석 1일 미만(무단 지각·조퇴·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 / 총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 탐구·제2외국어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 - 3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감점하지 않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 	구분	변경후	변경전	전 모집단위 (음대대학 제외)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2등급이내	성악과/기악과 /국악과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4등급이내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	작곡과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2등급이내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기준	2개과목 모두 3등급이내 음대(작곡 제외) : 2개과목 모두 4등급이내	2개과목 모두 4등급이내 음대(작곡 제외) : 2개과목 모두 6등급이내
구분	변경후	변경전														
전 모집단위 (음대대학 제외)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2등급이내														
성악과/기악과 /국악과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4등급이내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														
작곡과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2등급이내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기준	2개과목 모두 3등급이내 음대(작곡 제외) : 2개과목 모두 4등급이내	2개과목 모두 4등급이내 음대(작곡 제외) : 2개과목 모두 6등급이내														
성균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이수자 전형: 어학시험 자격기준 폐지 재외국민특별전형: 어학능력 자격기준을 폐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없음 															
숙명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시험 난이도 조정 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 종합적 감안한 평가 - 숙명인재(면접형) 면접: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 검토 중 															
연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전형: 고3 수상경력·창체·봉사실적 평가 미반영(졸업생 동일적용)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출결 결손 미반영 고1·2 재학생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고려 예정 															
이화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면접고사 온라인으로 진행 (면접고사를 교내 공간에서 진행해 문제유출이나 대리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는 필답고사의 경우 1.5~2m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을 시행할 예정) 학생부종합전형: 학종 비교과 평가 시 교교별 상황과 학생 특성 감안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재학생과 졸업생 간 유리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인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출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결손 미반영 - (서류)학생부 비교과활동 기록 중 고3에 해당하는 비교과 최소화해 평가 진행 - (면접) 면접대기 장소 확대, 면접대기 시간 최소화, 면접 온라인 진행 방안 검토 중 															
중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논술/실기전형 지원자 전원 봉사활동 만점 부여 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여건 감안해 공정하고 세심하게 평가 - 출결(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결손 미반영) 															
한국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폐지, 100% 서류평가 진행(승인 전) - 3학년 1학기 활동 코로나19 상황과 학교별 환경 고려해 재수생과의 차별/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학생부교과/논술 전형: 학생부 비교과(출결, 봉사) 미반영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고사를 실시간 화상면접으로 진행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 															

출처: 명지대 입학사정관실 ※ 6월 23일 시점으로 작성된 주요대학 정보입니다. 추가 대학정보는 각 대학의 입시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HONORARY REPORTER

육태균 명예기자

FOCUS 01

대학 온·오프라인 시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대학생들은 어느새 1학기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종강의 마지막 관문인 기말시험을 두고 다양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말고사 시험 방법은 대면 오프라인 시험과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각 방법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수 독단의 선택인 경우가 많아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각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먼저, 대면 오프라인 시험은 공정성이 높지만,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위험성을 이유로 대면 오프라인 시험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나 학교에 시험을 치러 도착해서 체온이 37.5도가 넘어 강제 귀가 조치에 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시험이나 대체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가천대학교 김OO 군은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코로나 감염 학생이 2명 나와서 200여 명을 전수조사한 적도 있었는

데, 이번 기말시험에 대면 오프라인 시험을 치러니, 너무 불안하다.”라고 말했으며, 영남대학교 이OO 양은 “시험 치려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의 안 하면 사실상 불이익은 나한테로 올 테니까, 교수님이 하자고 하면 학생한테는 선택권은 없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비대면 온라인 시험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성은 보장되지만, 공정성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모 대학교의 집단 커닝 사건 등 대학이 집단 부정행위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모두 학생의 신고로 발각되었는데, 이는 외부적인 요소로는 감독이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잠시 잠잠해지는 듯하였으나 다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2학기의 정상 오프라인 개강마저도 확실치 못한 상황이 되었다. 만약 2학기 역시 현행과 같이 온라인 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시험의 형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대송 명예기자

FOCUS 02

모두가 이로운 세상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뭉쳤다

‘모이세’란? ‘모두가 이로운 세계시민교육’의 줄임말로 비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도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들이 모여, 장애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이다.

모이세는 지난 6월 13일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시민교육과 공존의 길 모색’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세계시민교육의 권위자인 김진희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강연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문서 주제로 김기태 대표(휴먼에이드)의 강연이

있었으며, 이후 장애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모이세 회원은 “다양성과 나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FOCUS 03

선거관리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 배운다

세종 소담고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하는 시기(6월 15~26일)가 있다. 이 기간에는 각 반에서 2명씩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학생들이 활약한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학급회 임원 선거 운영 및 관리, 학생자치 능력 및 민주 시민 역량 함양을 목표로 선거관리위원을 각 반에서 두 명씩 선출한다. 선출된 두 명의 선거관리위원 학생은 각 반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서기, 후보자 공약서 및 신청서 검토, 선거공고 및 선거운동 유의사항 안내, 선거운동 감시 등의 역할을 한다.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도 진행하고 투표와 개표를 맡아 하는 등 선거관리를 총괄한다. 등교 개학을 먼저 한 3학년 학생들이 먼저 반장 부반장 선거를 했고, 2학년에 이어 1학년도 학급 대표 선출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뜻한다.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선거를 떠올릴 만큼 민주주의와 선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거는 국민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 즉 대표자를 뽑는 일인데 모든 국민이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선거는 필요하다.

학생들은 공약 검증 활동을 통해서 선거란 단순히 대표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우리 반을 대표할 친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공약도 지키지 않았던 친구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학생들은 그런 대표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이 자연스럽게 권력을 통제할 수 있음을 스스로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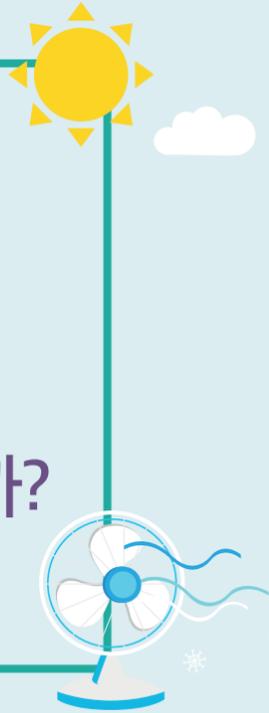
윤정하(민주시민 부장) 교사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배우고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측면에서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는 필수”라고 말한다. 학급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방법을 숙지하고 선거 과정에 필요한 투표용지 제작 및 개표 방법, 공약 검증 토론을 위해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대해 선생님께 배운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지원한 황혜현(1학년) 학생은 “첫 번째 회의에서는 후보들에게 공약검증단에 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선거 방식과 공약 발표 및 검증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뒤 선거함과 투표용지 등을 만들었다.”라며 “매우 흥미로웠고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소개했다. 소담고 학생들은 학급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몸소 배우고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는 중이다. ㉞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무더위 속, 등교수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이경화 독자

일주일씩 등교하는 중학생의 경우, 2주일 쉬고 학교에 가면 계속 수행평가를 보고 집으로 돌아온다. 무거운 가방을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친구들과 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른 채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는 마음 편해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해서 그동안의 과제를 제출하고 오는 초등학생도 문제다. 피드백을 받지 못한 아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쌍방향 수업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다.

#04 이정민 독자

오랜 기다림 끝에 등교 발표가 있던 날, 백신 개발도 치료제도 확실하지 않은 이 더위에 마스크 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6월 첫 등교일 아침에 하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서 큰 아이의 뒷모습은 눈물 나게 활기찼다. 교복에 마스크라는 불편함도 학교가 그리웠던 열다섯 살 소녀의 행복한 설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초등 3년생인 둘째도 누나의 뒤를 이어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교 후 두 아이가 쏟아 내는 학교 이야기는 선생님, 친구들과 지낸 시간보다 더 오래 씩씩이 이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순차 등교는 무사히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장 씩씩하고 의연한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작은 아이와 나란히 걸던 친구가 헤어지며 “안녕, 다음 주에 보자.”라며 손을 흔든다. ㉠



#01 박지혜 독자

2~3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등교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상과 코로나 방역이 적절하게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이 중요하다.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서 정확하게 공지를 받지 못해 내일 학교 가는 날인지, 가지 않는 날인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친구의 경우를 보았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중간고사가 미뤄지고, 기말고사가 앞당겨져서 모두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어서 모두가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3 유연상 독자

평생 처음으로 6월 개학을 했는데, 걱정과 우려보다는 아이들과의 만남에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다. 아이들을 본 순간 마스크 안에 있는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그렇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일주일, 금방 지나가고 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끝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순간순간을 안전하게 즐기며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들 또한 내 마음처럼 초등학교 6학년을 잊지 못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더 배우고 싶어요

인생 이모작 시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이 없어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작할래요

우리 지역 갈래요?

평생학습도시

지역민 모두 언제, 어디서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001년부터 교육부가 다양한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평생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서울 송파구

#송파SSEM #발달장애인평생학습권 #배움에 ON하다

- 체계적인 로드맵
 - 준비기(2008~2013), 실행기(2014~2020)를 거쳐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모델 '송파쌤(SSEM)' 구축의 확장기(2020~2024)로 발전
-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립
- '송파 배움에 온(ON)하다'
 - 동아리 발굴 및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 자립화 지원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광주 북구

#천년일자리창출 #배달강좌 #인생배움터-무릎학교

-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다양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청년 일자리 창출
 - 평생학습의 생활화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 '인생 배움터-무릎학교'
 - 마을 어르신들 강사로 임명하여 지역사회에 지식 환원 유도